

아이웨이웨이 구금 나흘만에 행방 확인

中 공안당국 “경제범죄로 조사중” 국제사회 비판·中예술가 서명운동

중국 공안당국이 제4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공동 감독자, 저명한 설치 미술가·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53)를 구금한 지 나흘 만에 “아이웨이웨이가 경제범죄로 조사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새벽 중국 공안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공안당국이 아이웨이웨이를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문화보(文匯報),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아이웨이웨이

가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화통신이 아이웨이웨이의 행방에 대해 보도한 것은 지난 3일 구금 이후 나흘 만에 처음이다. 신화통신 보도는 중국 공안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을 의미한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일요일인 지난 3일 베이징(北京) 서우두 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을 방문하려다 비행기 탑승 전 공안요원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웨이웨이의 행방은 신화통신의 보도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의 법률에는 공안당국이 피의

자 구금 후 48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돼있으나 이번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인권전문가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아이웨이웨이를 “경제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힌 것은 체제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아이웨이웨이를 의도적으로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 관계자는 “아이웨이웨이 같은 저명한 인사에 대한 체포는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의 승인없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아이웨이웨이의 체포는 반체제 인사들의 탄압과 관련한 명백한 전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웨이웨이가 구금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잇따라 중

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이웨이웨이의 아내 루칭(路青·53)은 6일 “남편은 자신이 구금될 것이라 불길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면서 “남편이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의 희생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등의 이유로 중국 정부와 불리한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과거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아이웨이웨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나오탁오(鳥巢)의 설계에 참여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했으며, 중국 당국의 검열에 맞서 인터넷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KTX 정치역 운영방안 시민토론회
구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렸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광주권 KTX 정치역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7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韓·日·中 ‘원전안전 합의문’ 만든다

내달 도쿄 3국 정상회의서...유사시 긴급통보

한·일·중 3국이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에 관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국들이면서 역내 인접국들인 한·일·중의 협력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재해나 테러, 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출 유무에 대해 서로 긴급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3국간 인적 교류와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3국은 지난날 19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제5차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원전 안전사고 발생시 한·일·중간 긴급 연락 시스템을 가동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으나 일본과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중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환경보호부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1년에 한차례씩 ‘동북아 원자력안전 규제자 회의’라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990년 5월 방사능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긴급사태 발생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과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 지원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의 한·일 원자력협력 각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통보 협약에는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기구에 핵사고 발생사실과 성질, 발생 시간, 정확한 위치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방사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용한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합의와 각서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대해 보다 강도높게 정확한 현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르투갈 EU에 구제금융 신청

그리스·아일랜드 이어 세번째

재정위기를 겪어오던 포르투갈이 6일(현지시간) 결국 구제금융 신청 의사를 밝혔다.

주재 소크라테스 포르투갈 총리는 이날 밤 TV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채가 많고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전했다.

소크라테스 총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원을 신청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감내할 수 없는 위험에 이를 순간을 맞고 말았다”며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재정지원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17개 유로존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포르투갈은 소크라테스 총리가 재정부채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긴축안이 부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지난달 23일 이후 가뜩이나 높은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기 시작, 10년물 수익률이 8.8%를 웃돌고 1년물도 5.9%를 넘어서는 등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소크라테스 총리가 오늘(6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에게 구제금융 신청 의사를 통보했다”며 “바호주 위원장은 (소크라테스 총리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성 김美 특사, 亞대사 발탁 가능성

태국·몽골 거론...부임엔 한국계 첫 외국주재 미 대사



미국 국무부의 성 김(49) 6자회담 특사가 빠르면 상반기중 아시아 국가의 대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 국무부 소식통은 이날 “올 여름 국무부 인사때 성 김 특사가 해외 대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로 부임할 경우 대사 교체 시기가 도래한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성 김 특

사가 대사로 부임할 주재국으로 태국, 몽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 김 특사가 대사로 발탁될 경우 그 시기는 조 도노번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후속 인선 때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특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2월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국무부 북핵특사로 임명돼 오바마 행정부의 대

북정책을 주도해왔다.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이민간 한인 1.5세인 성 김 특사는 검사로 활동하다 외교관으로 전직,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임명됐고 당시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와 호흡을 맞춰 회담 차석대표로 일하며 북핵 업무를 전담해왔다.

성 김 특사가 해외국 대사로 부임할 경우 미국의 첫번째 한국계 대사로 기록된다.

“김정일 핵 포기 않을것”

주한미사령관 추가도발 우려

윌터 사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은 6일 “북한의 추가 공격과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프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에서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김정일은 핵무기들의 중요성을 말했고, 자신의 계획은 계속 그렇게(개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한 뒤 “그가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년후... 건강보험 연간 50조 적자

직장 보험료를 12.6% 올려야

건강보험 재정대책 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현 상태로 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7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0 활동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전체수입이 2012년 40조7038억원, 2015년 48조3751억원, 2020년에는 6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25년에는 75조993억원, 2030년에는 87조459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추정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최근 5년간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됐다.

전체 수입과 지출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8833억원인 연

간 적자폭이 2015년에는 5조7924억원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적자폭이 1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17조2598억원, 2025년에는 30조8336억원, 2030년에는 무려 49조5654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한다.

이 경우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고객지원팀)

심리번호 2112073